# 연등축제 젊음생동…"미래 밝다"

◇제등행진을 마치고 종각사거리 회향식장으로 들어오는 불자들에게 손을 들어 답례하는 스님들. 〈사진=고영배 기자〉

- 매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설해지는 조계종 종정법어가 없었다는 것은 조계종단뿐만 아니라 전 불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종정스님의 법어는 불자들은 물론 국민들의 정신적인 귀의처로서 그 역할이 지대합니다. 이유야 어떻든 간에 한국불교 역사상 초유의 법어없는 부처님오신날을 보내게 한 관계자들은 각성하고 참회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 분단이후 최초로 남과 북에서 동시에 공동발원문이 봉독돼 의미깊은 부처님오신날이었습니다. 특히 대북식량지원을 계기로 남북불교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공동발원문이 조계종단 차원이 아닌 종단협의회 차원으로 봉독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전통등 20종 재현 '눈길'

- 올해는 전통연등이 재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조계사까지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봉황·목어·북·종·수박 등을 비롯 20여 종류의 전통연등은 시민들의 주 관심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 자료수집과 더불어 검증작업을 거쳐 전통 등을 보다 많이 재현한다면 봉축분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일은행 본점앞 컵등시연회에는 불자들 뿐만 아니라 시민들까지 참여해 연등을 만들었다.

**기자방담**

## 초파일을 보내며

불기 2541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다. 세상 어둠을 깨치기 위해서 이땅에 나투신 부처님을 갖가지 행사로 기렸다. 전통문화를 일깨우는 흥겨운 마당과 어린이 청소년들과 외국인의 참여가 크게 늘어 미래불교를 밝게한 봉축행사를 현장 취재기자들의 방담으로 다시 조명한다. 〈편집자 주〉

## 불황탓 문화행사 축소…연등수 줄어
## 학술행사 성과…북돕기 너도나도 동참

- 연등축제에 여타종단이 불참할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로 맞아 떨어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태고, 진각, 관음, 보문, 총지, 원효종 등 6개 종단 총무원장 및 부원장이 법요식에 참석했으나 봉축행사의 꽃이랄 수 있는 제등행렬에는 보문종과 총지종만이 참석했습니다. 모든 여타종단의 제등행렬 불참이라는 오명은 그나마 벗었으나 조계종을 비롯한 모든 종단은 이번 행사를 전화위복으로 삼아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 공중파 봉축프로 빈약

- 공중파 방송의 봉축프로그램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KBS, SBS의 경우는 자체제작을 하거나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한데 비해 MBC에서는 특선영화정도로 그쳐 봉축특집 프로그램은 명칭만 번지르르했던 것 같습니다. 공중파에 비해 오히려 케이블 TV에서 다채로운 특집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불교TV의 경우 예년에 비해 자체제작프로그램, 예를들면 '깨달음의 땅 수자타 아카데미'. '붓다의 고향을 가다' 등을 인도에서 현지 제작해 신선도를 높인 것이 주목할 만합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부처님오신날 당일에만 각 방송 특집이 집중적으로 몰려있어 정작 사찰에 가야하는 불자들은 특집프로그램을 볼 수 없는 실정이지요.

-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군포교를 위한 군불자사병 큰잔치 행사가 곳곳에서 마련됐습니다. 사병들을 위한 교리퀴즈 및 찬불가 경연대회, 장기자랑, 연등만들기 대회 등이 펼쳐져 사병과 함께하는 한마당으로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 부처님오신날 행사내용이 나눔 및 돕기에 너무 치중된 느낌입니다. 자비행의 실천은 중요하지만 일반시민들에게는 부처님오신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내용의 행사가 주가되어야 하다는 지적입니다. 각 단체들이 실시한 북한돕기 성금모금도 식상했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부처님오신날 행사는 부처님 오심의 본래 의미를 살려주는 행사위주로 했으면 합니다.

- 거리행사는 지난해에 비해 단조롭고 산만하게 진행됐다는 평입니다. 등시연회외에는 일반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이벤트 행사가 없어 아쉬움을 남겼구요. 또 종묘공원 앞 판소리공연등 몇몇 행사에서는 진행요원들이 없어 산만했습니다.

- 이번 봉축행사는 전반적인 사회의 불황탓인지 문화행사가 많이 축소된 느낌입니다. 매년 큰 사찰들이 열던 대형음악회도 이번엔 열리지 않은 가운데 봉축문화행사중 국립무용단과 국립국악관현악단이 함께 정기공연으로 개최한 춤극 '이차돈의 하늘'이 돋보였습니다.

- 불황과 경기침체 탓인지 연등도 예년에 비해 20~30% 줄었다고 합니다. 조계사 등 대도시 사찰은 평년수준을 이뤘으나 지방의 사찰이나 산 속 암자는 지난해 보다 40%이상 줄었다는 것이 해당 사찰스님들의 분석입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부처님오신날 비까지 내려 연등을 밝히는 손길이 더욱 줄었지요.

- 올해 봉축기념 세미나는 생명복제·해체철학·복장유물·문화유산보존·민족통일·청소년 실태 등 관심을 끄는 다양한 주제가 많았습니다. 관념적이고 초세간적인 불교가 아니라 현 사회의 쟁점을 불교와 연결시키는 이러한 세미나는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의 관심도 끌수 있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여겨집니다.

### 지구촌불자 인터넷 봉축

-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불자들에게 국내외에 봉축소식과 한국불교를 소개하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특히 조계종은 봉축이후에도 사찰과 불교단체를 인터넷으로 포괄하여 한국불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서비스분야가 미력하지만 세계에 한국불교를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전국 2백여개의 직장·직능법회는 예전처럼 봉축법회를 따로 열지 않고 초파일 전후 정기법회에 맞춰 봉축행사를 펼쳤습니다. 불황여파로 참여도는 다소 낮았지만 경제난 등 국가적인 어려움과 각 직장·직능의 불황극복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연등을 밝힌 차분한 분위기였지요.

- 이번 봉축행사기간에 '97 고양 세계꽃박람회'가 같이 열려 12일 불교전통의식인 영산대재가 봉행됐습니다. 개막시간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쳐 주최측을 곤혹스럽게 했으나 영산재보존회 스님들은 아랑곳않고 3시간동안 영산재의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시연, 큰 박수를 받았습니다.

- 북한돕기 노란연등이 기대했던 것만큼 많이 달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홍보기간이 부족해 참여가 부진했다는 평입니다. 노란연등은 서울 정토포교원(원장 법륜)에 80여개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에 1백20개가 공양됐습니다.

- 대불청 부산지구는 백(白)등과 50여개의 만장을 들고 행렬에 참여해 현재 양분되어 있는 부산 청년불교의 안타까움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 불교관련 출판물이 지난해보다 훨씬 줄어들었고, 서점을 찾는 불자들의 발길도 지난해 보다 줄었다고 관계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침체속에서 〈고려시대의 불화〉등 몇몇 잘 만들어진 불서들이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출간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목어**

## 어느 기업인의 호소

5월 15일 스승의 날 오전. 성남전자공업주식회사의 전화는 계속 통화중이었다.

이유는 이 회사대표 변동호사장(47)이 그날아침 4개 일간지에 '스승의날에 참스승을 찾습니다'라는 이색 광고(36×17㎝)를 냈기 때문이다. 전화를 건 사람들은 주로 목사들인데 "광고내용이 감동적이었다"고 말했다고 한다.

광고의 요지는 이렇다.

"우리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있는 것일가요? 이 모든 혼돈의 원인은 나와 내 가족만 잘먹고 잘살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에 양심도 윤리도 도덕도 내팽개쳐 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는 종교가 깨어나야 합니다. 종교지도자가 민족을 살리는 참스승으로 떨치고 일어서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주저 앉을 수는 없습니다. 홍익인간의 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참스승이 사라진 오늘날,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 종교지도자들께 충심으로 고합니다. 민족의 참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카세트 공테이프를 만든다는 회사 대표로서 종교인도 아닌 변사장이 적지않은 광고비를 쓰면서 종교지도자들에게 왜 이런 호소를 했을까. 본인과 직접 통화를 못해 단언할 수 없지만 그에게는 종교가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일것 같다.

"민족이 지금 길을 잃고 있는데 저 세상의 구원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 혼자만의 깨달음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눈있고 귀있는 종교인이라면 어찌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을 외면할 수 있을 것인가.

부처님오신날 봉축여운이 채 가시기전이기에 변사장의 글은 더 가슴에 와 닿는다. 특히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밝게'라는 슬로건을 내건 조계종은 '참스승'이란 단어를 예사롭게 볼 수 없었을 것 같다. 불자도 아니면서 단비 기다리듯 종정법어를 기다린 사람들을 실망시켰기에, '초파일후 갈등론'이 나돌고 있기에.

만약 조계종에서 다시 불협화음이 일면 세인들은 종단지도자들을 스승의 자리 또는 그 후보에서 탈락시킬지 모른다. 그런 불상사가 제발 없어야 할텐데….

# "자기중심적 사고 버리자"

## '천천히 함께' 교계 지도자 108인 의견 조사

## "한사람 열걸음보다 열사람 한걸음씩"
## 부정부패·생명경시 사회풍조 고쳐야

교구본사 주지, 신행단체장, 교계언론사 간부 등 교계 지도자들은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이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또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위해 '나'라는 아상을 버려야 한다' '그 사람의 지위나 능력과 상관없이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등 자기중심적 가치 척도를 극복, 개인과 전체를 함께 존중하는 사회풍조가 조성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부처님오신날봉축위원회(집행위원장 혜창)와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고영삼)가 공동으로 봉축캠페인 '천천히 함께'의 일환으로 교계 지도자 108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에서 56명이 대답한 결과 드러났다.

교계지도자들은 사회문제를 불교적으로 바라볼 때 고통받는 계층에 대한 관심(33%)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 다음으로는 참회하는 삶(30%), 사회공동체의식의 회복(25%) 순으로 응답했다. 또 과거 근대화 논리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결과주의·배금주의 타파와 주인의식·정신적인 개혁 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사회적으로 확산시켜야 할 불교문화로는 '모두가 부처'라는 인간존중사상(26%)과 참회(19%), 무소유정신(16%), 자자포살(14%)을 꼽았다. 이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사회풍조로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부정부패(줄대기풍조, 27%)와 이기주의(23%)를 지적한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결과로,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경시 풍조와 이기주의, 과다 경쟁의식 등이 만연하다는데 교계지도자 다수가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의 생활문화·습관 중 고쳐야 할 것으로는 '빨리빨리' 조급증과 자기중심적 사고, 대충주의에 대다수가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인이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고쳐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서도 견해를 같이 했다.

한편, 교계 지도자 41%는 '천천히 함께'라는 캠페인 표어를 접했을 때 '경쟁사회'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대형사고(28%), 교통사고(18%), 부정부패(10%)를 들었다. 또한 '천천히 함께'캠페인의 저변화를 위해 불교계 내부적으로 '한사람의 열걸음보다 열사람의 한걸음이 중요하다'는 더불어 함께하는 삶을 강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필선 기자


"출가 4박 5일"

# 제27회 송광사 여름 수련법회 수련생 모집

지금으로부터 800여년전인 고려시대때부터 나라의 스승인 열여섯분의 국사를 배출한 승보종찰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수행도량인 송광사에서 〈출가 4박 5일〉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참된 자신을 찾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시적인 출가수행자의 생활로서 묵언과 참선, 발우공양 등 스님들과 똑같은 생활을 합니다. 불교신자는 물론 종교와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다소 힘이 들지는 모르나 맑고 충만한 산사의 기운과 정신을 얻을 수 있다면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피서지에서의 휴가보다 더욱 보람이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1997년 여름수련법회 일정

| 차 | 기간 | 모집인원 | 신청기간 | 연 령 | 대상 |
|---|---|---|---|---|---|
| 1차 | 1997년 6월29일-7월3일 | 100명 | 5월20일~6월10일 | 제한없음 | 불일회원 |
| 2차 | 7월 6일-7월10일 | 〃 | 〃 | 20세~60세 | 일반인 |
| 3차 | 7월13일-7월17일 | 〃 | 〃 | 〃 | 〃 |
| 4차 | 7월20일-7월24일 | 〃 | 〃 | 〃 | 〃 |
| 5차 | 7월27일-7월31일 | 〃 | 〃 | 〃 | 〃 |
| 6차 | 8월 3일-8월7일 | 〃 | 〃 | 〃 | 〃 |
| 7차 | 8월10일-8월13일 | 120명 | 〃 | 중1 - 고3 | 불일학생회(중·고교) |
| 8차 | 8월14일-8월17일 | 100명 | 〃 | 20세-35세 | 불일청년회 |

◈ 7차 불일학생회와 8차 불일청년회의 일정은 3박 4일입니다.

■ 모집요강

① 신청대상

- 제 1 차 수련법회 (4박 5일) : 송광사 전국 불일회 회원
- 제2-6차 수련법회 (4박 5일) : 일반인
- 제 7 차 수련법회 (3박 4일) : 송광사 본·말사의 중·고등부및 중·고등부 학생회원
- 제 8 차 수련법회 신청대상(3박 4일) : 송광사 본·말사의 청년회원및 전국 불교 청년회원
- 자원봉사신청 지원대상 : 송광사 수련법회 참가경험이 있는 분으로 매 차수별 10명 내외
- 참가통보 : 6월 25일까지 개별통보
- 동참금 : 1-6차(일반인수련회) : 7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7차(중고등학생수련회) : 4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8차(청소년수련회) : 5만원 (교재, 기념사진, 기념품, T셔츠 포함)

■ 신청서작성

별도의 참가신청서는 없으며, 아래의 기재사항을 A4 용지에 빠짐없이 기재한 후 우편이나 팩스(FAX)로 신청

| | | | |
|---|---|---|---|
| 1. 이 름 | (한글)<br>(한자) | 2. 주민등록번호 | |
| 3. 주 소 | (주소)<br>(우편번호) | 4. 직 업 | |
| 5. 전화번호 | (자택)<br>(직장) | 6. 종 교 | |
| 7. 수련법회 경험 유·무<br>(있으면 참가년도 참가사찰명 자세히 기재) | | 8. 원하는 차수 | 제 차 수련번호<br>제 차 자원봉사 |
| 9. 참가하고자하는 이유(상세하게) | | | |

* 팩스(FAX)로 신청하실때는 접수후 꼭 전화 확인바랍니다.

- 문의처 : 전화/0661)755-0407,0109(오전 7시 - 오후 6시까지만 가능)전송/0661)755-0408
- 접수처(주소) :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여름수련법회 담당자 앞

불기 2541년 5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21 교구본사 송 광 사 주지 현고.